

미얀마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동향

김미림 연구원
KIEP 동남아대양주팀

■ 주요 내용

- 2016년 7월 29일 미얀마 신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첫 공식 경제정책을 발표함.
- 미얀마 신정부 수립 5개월 동안의 경제개혁안은 모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분야별 세부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2016년 7월 29일 미얀마 신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첫 공식 경제정책을 발표함.

-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비전과 네 가지 목표, 12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힘.
- 미얀마 신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국민화해에 기여하는 인간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함¹⁾.
- 경제정책은 민족 간 분쟁 종식에 기여, 지역균형 발전, 기회창출을 위한 개혁, 혁신과 노력 중심의 경제체제 수립을 목표로 함.
- 농업과 산업 간 균형 발전, 국영기업 개혁,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개발, 투자 환경 개선 등이 경제 정책에 포함되어 있음.

표 1. 미얀마 신정부의 분야별 경제정책

	분야	내용
1	공공재정	·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공재정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
2	기업정책	· 국영기업 운영 개선 및 국영기업 민영화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
3	인적자원 개발	· 인적자본 육성, 직업교육 및 훈련 개선 및 확대
4	인프라	· 기본적인 인프라(발전 시설, 도로, 항구 등)의 빠른 확충 · 데이터 ID 카드시스템, 디지털·전자 정부 시스템 수립
5	고용	· 모든 시민(해외에서 귀국한 시민 포함)을 위한 고용 기회 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6	산업	· 농업과 산업 간 균형 발전 · 균형 발전을 통한 식량 안보, 수출 확대 달성
7	투자 환경	· 개인이 선택한 경제적 기회를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재산권, 법치 강화 ·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민간 부문 성장 · 외국인투자 증가를 위한 정책 수립
8	금융	· 가계, 농가,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확립 · 금융 안전성 달성
9	환경, 문화	·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 공공 서비스, 시설 개선 · 공공 공간 확장 · 문화 유적 보호, 보존을 위한 노력 경유
10	조세, 재산권	· 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확립 · 개인의 권리, 재산권 보호
11	지식재산권, 혁신	· 혁신과 선진 기술의 발전을 촉진 ·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전문적 체제, 과정 수립
12	세계경제 편입	· 아세안과 그 외 권역의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업환경을 파악하여 현지기업들이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미얀마 경제정책 발표자료 통합

1)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 사용과 국가 전역에 걸친 균형 잡힌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함.

- 7월 경제정책 발표 이전 미얀마 신정부는 각 부처별 개혁의제를 밝히는 100일 계획을 발표하게 함.
 - 100일 계획은 교통, 통신, 전력 인프라를 비롯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꼽힘.

표 2. 미얀마의 각 분야별 100일 계획

분야	내용
교통	(육상) ·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보수 · 양곤-만달레이 철도 건설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과 도로 보수 협력 (항공) · 미얀마 국영 항공기 유지, 보수 (해상) · 일본정부와 만달레이 항구 건설 및 개발을 위한 차관 협의 · 이라와디 강 5개년 개발계획(세계은행 지원)
통신	· 이동통신 사업자에 2600MHz 대역 할당 입찰 실시 계획 ²⁾ · 지하 섬유 케이블, 전력 케이블 확대 및 설치
전력 인프라	· 신규 송전망 설치 및 교체,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증강 ·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법의 집행을 보장
기업정책	· 중소기업 지원(국제기구의 재정, 노하우, 인적 자원 이용) · 사업자 등록비용 조정: 민간유한회사는 백만 샌에서 오십 만 샌으로 감액, 공개상장기업은 백만 샌에서 이백 오십만 샌으로 증액 ³⁾

자료 : 미얀마 경제정책 발표자료 통합

- 또한 신정부는 기획재정부, 상무부 장관, 국회의원, 금융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국립 경제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무역, 재정, 통화, 투자 등의 정책을 검토, 조정하며 개혁의제를 파악하게 함.

2 전망과 시사점

미얀마 신정부 수립 5개월 동안의 경제개혁안은 모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분야별 세부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

-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추진 수단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 경제정책의 내용이 2015년 말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발표한 선거 공약과 내용, 범위에 있어 유사하며 선거 공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더해진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 각 주요 부처들이 발표한 100일 계획도 분명한 중장기 정책, 계획이라기보다는 민간의 기대에 대한 신정부의 의사소통 정도로 평가됨.

2) 현재는 900 MHz와 1100 MHz만이 사업자에 할당됨.

3) 2016년 6월 1일부로 시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경제정책은 투자자들과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미얀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o 미얀마 정부는 인프라, 농촌 개발, 에너지 공급, 조세개혁을 중점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알려짐.
 - o 100일 계획에서는 신정부가 외국인 투자 증가와 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명하고 세부적인 경제정책이 발표되지 못한 데에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경제보다 종족분쟁 종식과 민족화합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o 신정부와 의회는 취임 초기 정치, 공공 행정, 인권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왔음.
 - o 신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정된 법안은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 민족 화합 및 국내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각 부처의 장관 인선이 전문성보다는 청렴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뤄졌으며 취임한 장관들 대부분이 정치, 인권관련 주제에 익숙한 인물들로 평가됨.
 - o 각 부처의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각 부처별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었을 것임.
- 그러나 올해 7월 경제정책 발표 이후 미얀마 신정부가 분야별 정책과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가 기대되는 바임. **EMERiCs**

출처

미얀마 경제정책 발표자료 종합, Oxford Analytica, ALLEN & OVERY 및 각종 보도자료